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심 성월 ·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제34권 30호(가해) 2014.6.22

[묵상]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살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부서져 가루가 됨으로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입에 들어가 쉽게 녹아
살로 가게 하시고자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큰사랑이
오늘도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곧 성체를 받아 모시며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이때의 '아멘'은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고,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짜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주영석 베드로
특전미사	(생)최보나 보나,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연)이정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윤기출 마리아, 김희순, 오진 베드로, 주광자 안나, 김혜옥 안나
낮미사	(생)조운채 요셉, 이희운 도미니카, 조태선 엠마, 이광웅 요셉 & 이희복, 김남호 올리오 & 최운정 레지나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 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8,2-3,14-16

화답송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제 2독서 고린토 1서(1 Corinthians) 10,16-17

- 성체 송가<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양식> -

부속가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요한(John) 6,51-5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안에 머무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306	106
봉헌	255	257	272
성체	382	304	284
파견	401	200	226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18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기꺼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렇게 당신과 비슷하게 하시고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으로 계시며 환호를 들으십니다. 알렐루야!

19 당신은 동정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느님의 동정 어머니시여,

당신께 다가오는 자들의 어머니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당신을 죄 없이 하셨습니다.

그 주인께서 당신의 태중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노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의 기둥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문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영적 탄생의 원리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선의 분배자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부끄럽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갚아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영혼의 파괴자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믿는 이들을 주님께 일치시키는

씨앗 없이도 이루어진 신혼의 신방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동정녀들의 달콤한 양육자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영혼들의 중매인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20 하느님의 풍요로운 자비에 겨룰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임금이시여.

만일 우리들의 노래가 모래알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노래합니다. 알렐루야!

21 어둠에 누워 있는 자들을 비추는 햇불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하신 동정녀를 묵상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도록

영혼에 등불을 밝히십니다.

당신의 찬란함으로 마음들을 밝혀 주십니다. <◆계속>

내 안에 담다. 그래서 답아가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예상한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지방 증가, 지방간과 내장비만.... 늘 입으로만 부지런을 떨었지, 몸은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게으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조절과 꾸준한 운동, 부지런한 생활태도가 요구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바라 보면서 문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미사에 나오는 신자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몇 가지 성사생활 중에서 이 성체 성사만큼, 평소의 꾸준함을 요구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침(浮沈) 없이 참례하는 성체성사(미사)야말로 지방간이 끼지 않는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체성사는 그다지 어려운 얘기가 아닌, 보통 '먹는 것의 법칙', '밥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중 식사와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친교(일치)'입니다. 식사란 것은 원래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하고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버릇입니다. 식사만큼은 어느 정도 자기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먹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은 거북한 사람과의 식사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와 가까이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바로 나의 친교의 폭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나의 친교의 폭은 열 만큼인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과 식사할 수 있다면 나의 친교의 폭은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식사 친교의 폭이 보통 '유유상종, 끼리끼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하류층은 하류층끼리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질의 음식을 먹습니다. 장소와 메뉴를 달리해서 먹는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성체성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그것도 보통 음식이 아닌 예수님의 몸(성체)이라는, 똑같은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답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내 몸 안에 담는 것이고, 내 몸 안에 담은 그 음식의 성질을 내가 점점 답아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기운에 따라나도 그것을 답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몸을 먹는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담아서', 점차 주님을 '답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내 안에 '담는' 나는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을 '답아' 있을까요?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너를 인정해야하는 이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이도 있고, 행인을 보는 이도 있고, 앞 건물을 보는 이도 있고, 유리창의 얼룩을 보는 이도 있고, 어제 했던 실수를 생각하는 이도 있고,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는 이도 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도 있고. 창가에 서 있는 것으로도 우리 '나'를 드러낸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낙기 바오로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각급학교 졸업 축하합니다.** ⊙

6월은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식이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본당의 초, 중, 고, 대학 모든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 **본당 홈페이지(<http://www.103skcc.org/>)에 서식/양식 게시판 올림**

- 백삼위 성당 홈페이지에 서식/양식 게시판이 개시 되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직접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서식및 양식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식/양식 게시판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광장" 에서 서식/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문의 : 103skcc@gmail.com

◆ **주일학교/한국학교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 기간 : 6월22일~8월31일
- 개학 : 9월7일(주일)
- 수업은 없지만 주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계속 봉헌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미사참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서두르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e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자모회 주관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7월5일~8월23일(8주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
- 신청 및 연락처 : 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자모회장 한길선례 스킨라스티카☎(310)782-1025

◆ **성 골롬반 후원회 감사 미사**

- 일시 : 6월26일(목) 오후 7시30분 성 아그네스 성당회관
6월28일(토) 오후 3시 한국 순교자 성당
- 문의 : 오 토마스(626)421-9803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 오전 8시~밤 10시
8월3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1301 Avenida Cesar Chaves Monterey Park, CA 91754)
- 강사 : 반병익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곡대교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213)369-0173
- 문의 : 김충섭 마틴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회장
- 후원 : 남가주사제협의회, 남가주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가톨릭 방송

☺ **서로 인사 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2일(주일) : 하버 카슨 1반(우거지국밥 \$3)
- 6월29일(주일) : P.V. 1반봉사(전신자 무료점심 미역국)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영숙	박영희	박음전	반비오	성낙호	성전헌금	강미순	김영숙	박음전	반비오	성낙호	안태갑
	송재훈	안재경	안태갑	오세원	오태환	윤분아		오세원	오태환	윤희동	이미경	이일길	임 순
	윤희동	이미경	이재용	이재철	임 순	임연조		정남형	정동호	정정현	정지숙	최열자	최원석
	정남형	정동호	정명모	정연영	정정현	정지숙		최지영					
	최열자	최원석	최의수	최지영									
합계 : \$2,605							합계 : \$1,245						
주일미사 헌금 : \$2,824							주보광고후원 : \$250						

◆ FIAT리더십 트레이닝 피정에 주일학교교사 3명 참가

- 지난 19일(목)부터 22일(오늘주일)까지 성 토마스성당에서 본당 주일학교 교사 3명(조셉 박, 앤드류 남, 제니퍼 현)이 FIAT 리더십 피정에 참석중입니다.
-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등학교 교사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 오후 4시 성당 파킹랏~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수영복, 방한재킷, 주일헌금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중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

- 주제 :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생애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6월27,28,29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제2회 학생 성화미술대회 (남가주한인가톨릭미술가회)

-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대상 :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 마감 : 6월30일까지 * 보낼곳 : 가톨릭신문사
- 문의 : 가톨릭미술가회 ☎(818)667-2877

◆ 특강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일시 : 7월27일(주일) 오후 1시~4시
- 강사 : 이인국 바오로(서강대교수, 생명윤리학박사)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주관 : KCLC(미서부지역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양 요안나 ☎(909)518-4376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율리아 213-675-0498 6/14(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01-6343 6/14(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3(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임순 데레사 780-3258 6/14(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6/15(주일) 플레이스리타캐년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6/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6/8(주일) 오후 2시 성당천교장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주이자 데레사 634-6923 6/13(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2 6/15(주일) 오후 5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유명련 마리아 365-0660 6/14(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갑열 데레사 533-7718 6/13(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리스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센시아 482-9108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지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강숙경 도미니카 617-3568 6/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2013~14년회기 마지막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가정의 날	
-------	--

첫 영성체

우리는 조상들도 몰랐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존재들입니다. “조상들도 몰랐다.”(신명 8, 3, 16)는 말씀은 조상들이 전해 준, 지금껏 그렇게 알아 왔고 그렇게 전해 지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다르다.”(요한 6, 58)는 말씀을 조상들이 잘못되었고, 조상들이 먹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모순이 감지되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영하게 되는 성체는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성체를 영하지만, 그래서 항상 같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 안에는 과거를 파기하고 예수님의 존재성을 뒤흔드는 새로움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매일의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 같으면, 그리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체는, 항상 새로움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요한 6, 51)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현실에 대한 안주, 관념에 대한 멈춤으로 새로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고집’은 우리 안에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하게 되는 성체는, 그 누구도 몰랐던 나만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결코 나만 바라 보는 ‘이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함께’를 찾게하는 새로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1코린 10, 17)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지금’의 ‘하느님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첫영성체 때의 기다림과 설렘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했던 온갖 준비들. 정화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생각에 조심조심했던 마음들. 주님의 새로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움으로 나서고 있는지요?

매일의 성체 영함이 첫영성체이고 마지막 영성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중한 일치의 시간이 되십시오.

◆곽길섭 베드로신부 / 울산대리구 선교사목 담당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례상식

주님에 관한 축일들의 형태를 보면 구원 역사와 관련 있는 축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주님에 대해 어떤 특별한 면을 부각시켜 만든 이념, 신심 축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중에 지내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이 바로 그러한 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1247년 프랑스 리에즈(Liéfe)의 올리아나라는 한 수녀의 열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이탈리아 볼세나(Bolsena)에서 일어난 성체성사 기적에 감명받아 교서를 반포하는 가운데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새 대축일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신자인데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후에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 한 때 농부 할아버지와 황소의 우정을 다룬 ‘워낭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워낭소리의 주인공 농부 할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낭소리를 본 사람들이 나이 든 아버지를 시골에 버려둔 자녀들을 비난하여 할아버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실은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할아버지와 황소의 우정을 더 부각하기 위해 자녀들의 모습을 편집하여 뺐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도를 받아 기록된 중요한 계시의 원천이지만, 성경도 엄연한 한계를 지닙니다. 성경저자들은 각자 저술 방식에 따라 계시 진리들 중에 선택하여 기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성경 기록의 한계를 이야기 합니다.(요한 21, 25 참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계시 진리들은 거룩한 전통(성전)을 통해 전해진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들이 성경을 포함한 성전에 담겨 있는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은 아무 사람이 후대에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전해진, 교도권을 지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선포된 진리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